

## 작품 핵심

사람의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속물적 인간들을 통해 당시의 현실을 폭로하는 작품. (비열한 인간이 바로 T 교수이고, 속물적 현실과 양심 사이에 고뇌하는 지식인이 김 강사이다.)

## 핵심 곡목!

- 1 주제: 일제 강점기 시대 속에서 현실의 안정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지식인.
- 2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3 특징
  - ① 인물의 내적 갈등이 나타나 있다. (㉔) 가슴속에서는 그의 조그만 지위와 양심이 저울에 걸려 있는 것을 느끼면서.)
  - ② 속담을 활용하여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있다. (㉔) 물에 빠지는 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 ③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 있다. (㉔) 그는 광화문 정류장에서 전차를 내려 효자동 가는 전차를 타지 않고 천천히 종로로 갔다.)
- 4 중요 소재: 문화 비판회(김만필에게 자랑스러운 것,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서양과자(윗선에 아부를 떨기 위해 산 물건)

## KEYWORD

지식인, 현실, 비겁함, 조롱, 아부, T 교수, 김만필

“문화 비판회라니?”

김만필은 시치미를 떼고 되물었다. 스즈끼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선생님이 그 회원으로 굉장하게 활동하신 것은 학생들이 모두들 압니다.”

“아뇨, 그런 일은 없소. 그건 무슨 잘못이겠죠.”

김만필은 당장에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그 말을 부정했다. 가슴속에서는 그의 조그만 지위와 양심이 저울에 걸려 있는 것을 느끼면서.

“그러서요.”

스즈끼는 의아해하는 표정을 하면서

“그 회가 해산될 때 선생님이 굉장한 열변을 토하셨다는 말까지 있는데요?”

“아니 그런 일은 없소.”

김만필은 그래도 부정했다. 그러나 그의 기억에는 그날의 감격에 찬 광경이 역력하게 나타났다. 문화 비판회가 드디어 해산되기로 정해진 날 그는 분노에 불타서 말은 더듬거릴망정 그야말로 소리와 눈물을 한꺼번에 내뿜는 열변을 토한 것이었다. 그 고운 기억은 그가 아무리 비열한 인간이 되어 버리는 날이 있을지라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인 것이다. 김만필은 그것까지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자기의 현재의 지위에 대해 잠깐 스스로 책망하는 생각에 잠겼었다. 그러나 곧 그는 공세로 옮겨 갔다. 이런 소리까지 냄새를 맡아 가지고 학생새에 펼쳐 놓는 그 근원은 대체 어느 곳에 있는 것인가.

“그런 소문은 대체 어디서 들었소?”

스즈끼는 김 강사의 심상치 않은 태도에 당황해서 얼굴을 붉히며

“요전에 다카하시 군에게 들었습니다.”

“다카하시는?”

“T 선생이 그러시드래요.”

“T 선생?”

“네. 김 선생님은 굉장한 수재시고 동경 제대서도 문화 비판회의 중요한 회원이시었다구요.”

“흠 —.”

김만필은 말없이 생각하였다. 이것은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무슨 깊은 책략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렇기로 T 교수는 대체 어디서 또 그런 소리를 냄새 맡아 왔을까. 정말 셰퍼드 같은 작자다. 이놈 이번에는 제 본색을 나타냈구나 하고 분개했다. 그리고 보니 지금 그의 앞에 앉았는 스즈끼까지도 의심스러워졌다. 스즈끼는 오늘 처음으로 찾아왔으면 다른 선생한테 가서 철없이 떠들면 단번에 학교를 쫓겨날 만한 소리를 지지하게 늘어놓았으니 그렇게까지 자기를 신용할 근거가 어디 있는가. 어쩌면 이 스즈끼 놈도 T 교수와 한통이어서 일부러 김만필의 본심을 떠보러 온 것이나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기를 시작하니까 다음 다음 모든 것이 의심덩어리였다. 대체 취임식 다음 날 T 교수가 난데없이 스즈끼 욕을 자기에게 들려주던 것부터 이상스러웠다. 그것은 일부러 자기를 속일 전제가 아니었던가…… 스즈끼는 김 강사의 눈치가 험해 가는 것을 보고 어쩔지를 몰라 멈칫거렸으나 스즈끼가 그러면 그럴수록 김 강사는 이놈 시치미를 떼는구나 하고 점점 더 스즈끼가 밍게 생각되는 것이었다.

(중략)

“긴장, 그날 밤 일 아주 기억하고 계시죠. H 과장 댁 앞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던 날 밤 —.”

김 강사가 의미 없는 웃음을 지었더니

“기억하고 계시죠, 내가 과자 상자를 들고 갔던 것 보셨죠.”

김 강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이란 다 그런 겁니다. 난들 그런 짓을 하기가 좋아서 하겠소. 어쨌든 지금 연말도 되



구 했으니 교장한테 무어 과자라도 한 상자 사 가지구 찾어가 두시란 말이오.”

말해 던지고 T 교수는 그대로 가 버렸다.

교실에 들어가 강의를 하면서도 김 강사는 T 교수의 말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 씹어 생각해 보면 T 교수의 말은 그럴 듯도 싶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와서 과자 상자를 사 들고 주적주적 교장을 찾아가도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업신여김을 받을 것 같았다. 뿐 아니라 T 교수의 성격이라든지 그의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그가 진정으로 김 강사를 위해 무슨 말을 해 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T 교수의 말은 실상은 책상 물림 주제에다 어딘가 만만치 않은 교장이 있는 김 강사를 조롱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또다시 돌려 생각하면 T 교수의 말은 좀 더 의미가 깊은 것으로 ‘교장은 너를 미워하고 있다. 너도 미리 생각을 돌리지 않으면 목이 잘라진다.’라는 협박같이도 생각되었다.

그러나 어쨌든 그날 밤 김 강사는 명치옥에 가서 서양과자를 한 상자 샀다. 위 뚜껑에 ‘조품\*’이라 두 자를 쓰고 그 밑에 자기의 명함을 붙였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종시 두 가지 의사가 싸우고 있었다. 암만 무얼 해도 이 짓만은 하기 싫다. 자기가 이것을 가지고 가면 교장은 이놈 인제두 하고 빙그레 웃고 T 교수는 등 뒤에서 그 능글능글한 웃음을 띠고 나의 어리석음을 조소할 것이다. 어차피 S 전문학교에 다니는 것도 길지는 않을 것이니 이런 짓까지 하면 그만큼 나는 밑질 뿐 아닌가. 그러나 바로 그다음에는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아니 T 교수의 말대로 세상이란 다 이런 것이다. 내가 지금 암만 뽀내 본댔자 배 속을 짜개면 S 전문학교를 나가고 싶지 않은 것이 본심이 아닌가. 물에 빠지는 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한다. 이론이 다 무엇이냐. 내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이 더럽다 하면 나에게 이런 짓을 하게 하는 자들은 더 더러운 것이다. 이런 것으로 더럽히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놈들의 양심이다. 나는 요런 조그만 미끼를 물고 좋아하는 놈들의 그 천박한 꼴을 조소하면 그뿐인 것이다 —.

김 강사는 악마의 마음을 먹은 심 잡고 과자 상자를 들고 서대문행 전차를 탔다. 그러나 그의 결심은 오래 계속되지 못했다. 그는 광화문 정류장에서 전차를 내려 효자동 가는 전차를 타지 않고 천천히 종로로 갔다. 본정통의 번잡한 데 비해 이곳은 몹시 잠잠했다. 일루미네이션(설비등)만 헛되게 빛나고 세모 대매출의 붉은 깃발이 쓸쓸한 선달 대목 거리의 먼지에 퍼덕이고 있었다. 한참이나 거리를 어슬렁거리다가 욕심쟁이로 일가 간에 돌림뱅이가 된 아주머니를 생각한 그는 걸음을 빨리해 파고다 공원 뒷골목으로 들어갔다.

- 유진오, 「김 강사와 T 교수」 -

\* 조품: 매우 간략하게 만들어 거칠고 변변하지 못한 물건.

### Quiz

정답과 해설 493P

- 01. 인물의 감정을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  X
- 02.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를 통해 시간의 역전을 보여 주고 있다.  O  X
- 03. ‘김만필’은 ‘문화 비판회’ 활동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O  X
- 04. ‘T교수’가 본인이 ‘과자 상자’를 들고 교장에게 간 것에 대해 ‘세상이란 다 그런’ 것이라고 한 것은 ‘김만필’을 위한 진심어린 충고이다.  O  X
- 05. ‘암만 무얼 해도 이 짓만은 하기 싫다’는 대목에서 ‘김만필’이 고민을 끝냈음을 알 수 있다.  O  X

## 등장인물

- ① 김만필: 독일어 교수. 롬펜(실업자) 생활에서 벗어나 S 전문학교 독일어교사로 부임하였다. 그는 열정 가득한 강사 생활에 대한 기대로 마음이 들떴지만 기대와 다르게 교원실에 있는 교수들이 무의미한 화제에 대해 한없이 떠들어대는 것에 환멸을 느낀다. 좀 더 학자적 모습과 학문적 향기를 가진 지식인들을 교원실에서 찾았지만 그런 사람을 여기서 찾기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곳에 환멸을 느끼는 한편, 감추고 싶었던 과거(문화비판회 활동을 역임한 일)가 T 교수로 인해 탄로나게 되자 일자리를 잃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곧 그의 두려움은 약점이 되고 자신의 모순되는 행동에 환멸을 느낀다.
- ② T 교수: 겉과 속이 다른 음흉한 사람. 새로 부임한 김만필에게 친절하게 다가가 학교에서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를 해 준다. 경험이 많은 선배이자, 교무주임의 위치에서 김만필에게 접근하지만, 김만필이 H 과장에게 인사하러 왔을 때 비열한 미소를 띠며 숨겨두었던 본색을 점차 드러내기 시작한다. 결국에는 김만필의 과거 행적을 약점으로 잡아 그를 쥐락펴락하게 되며 마지막까지 비열한 미소를 감추지 않는다. (사회적 경제적 입지를 확보하는 일을 중요하게 보는 인물. (연계 교재))
- ③ U 교수, S 강사: '정의파'. S 전문학교 T 교수와 교장을 비롯한 '교장파'와 대립하는 인물들이다. (미수록된 부분)

## 줄거리

김만필은 S 전문학교의 독일어교사로 취임하게 된다.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도착해 찾아가 교장실에서 교장은 취임 전 친절한 태도와는 달리 위엄을 차린 모습으로 그를 맞이한다. 김만필에게 사령서를 전달해 준 교장은 그 전 '당신'이라는 호칭에서 '자네'로 바뀌 부르며 조선인이기에 주의해야 한다는 훈시와 함께 T 교수를 소개해 준다. S 전문학교 취임식에서 김만필은 학생단체 활동을 하던 대학시절과 교수에게 취업부탁을 하면서 좌익문학운동에 관한 글을 쓰던 일, 그 후 H 과장의 소개로 S 전문학교 교장을 만난 일을 생각하며 모순에 찬 자신의 시간을 분석해본다.

첫 수업을 앞둔 김만필은 열심히 수업을 준비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근했다. 하지만 교원실의 분위기는 그가 생각한 학구적 분위기와 달리 교수들이 약장수들처럼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분위기였고 김만필은 그들과 섞이지 못한다. 그에게 다가온 T 교수는 특별히 신경을 써준다며 첫 수업에 대해 조언해준다. 다른 교원들의 이상한 눈초리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T 교수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그러나 그 고마움도 잠시, 첫 수업을 무사히 마친 김만필에게 T 교수는 스즈끼 등 앞으로 주의해야 할 학생들을 알려주고 그런 T 교수의 태도에 김만필은 그가 무섭다고 느낀다.

김만필은 자신의 임용에 도움을 준 H 과장에게 인사를 할 겸 찾아가는 길에 T 교수를 만난다. T 교수는 김만필에게 '할 짓은 다 한다'면서 이상한 눈초리를 보내며 같이 차를 마시자고 졸라 술집에 들어간다. 그곳에서 T 교수는 김만필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하며 그가 쓴 논문에 대해 이야기 한다. 그 논문은 김만필이 원고로 때문에 쓴 글로, 좌익평론가인 척 쓴 것이라 S 학교에선 알아서는 안 될 일이었다. 게다가 T 교수는 김만필이 감추고 싶어 하는 과거뿐만 아니라 김만필의 집까지 알고 있었고, 김만필은 T 교수로부터 무서움을 느낀다.

김만필은 S 전문학교에 출근하면서 우울해지기 시작했다. 교장의 경박한 인상도 T 교수의 친절한 체도 교원실의 공기도 모두 싫었다. 다른 교수들과 어울리지 못했지만 학생들의 평판은 나쁘지 않아 여기에 기운을 얻는다. 그런데 일은 '일요일'에 갑작스럽게 생긴다. 김만필이 하숙집에 있을 때 스즈끼가 찾아온 것이다. 독일 문학에 관해 떠드는 스즈끼에게 김만필은 이전 T 교수의 귀뜸 때문에 그를 경계하게 된다. 이를 알 리 없는 스즈끼는 김만필이 문화비판회로 활동했던 것을 말하며 학생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이는 T 교수가 이야기 한 것이라 전한다. 김만필은 T 교수를 세퍼드 같다고 느끼며 악의가 없는 스즈끼조차 의심하게 된다.

스즈끼가 왔다 간 후 김만필은 더 우울해지며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된다. S 전문학교는 T 교수의 이간질로 T 교수와 교장을 둘러싼 세력과 그들과 대항하는 U 교수와 S 강사 등의 정의파로 나뉘어져 있다. 어느 날 T 교수는 김만필에게 교장에게 찾아가라고 충고하고 김만필은 서양과자를 포장해가지만 결국 교장에게 찾아가지 못하고 돌아선다.

방학이 오고 해가 바뀌었으나 김만필은 하숙집에서 나가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정신적 피로를 느낀다. 휴가가 끝났고, 교원실의 T 교수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조선의 풍속에 대한 것인데, 그런 T 교수에게 김만필은 들어 본 적 없다며 한 마디를 한다. 어느 날, T 교수는 김만필에게 H 과장을 찾아가보라 말하며 그가 김만필에 관해 이상한 소문을 듣고 기분나빠하고 있다고 전한다. 김만필은 처음에는 탐탁하지 않았지만 T 교수의 말대로 가보기로 결정한다. H 과장을 찾아가 김만필에게 H 과장은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해 화를 낸다. 김만필이 대학시절 ××단체에 들었고 그 후 좌익문학 운동에 참여한 일을 들먹거리며 김만필을 추천한 자신의 얼굴에 똥칠을 하였다며 화를 냈다. 김만필은 올 것이 온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자신은 ××주의자가 아님을 끝까지 밝힌다. 그런 김만필에게 화내는 H 과장 뒤로 미소를 띤 T 교수가 나타난다.



### 중요 소재

- ① 문화 비판회: 김만필이 과거에 활동한 단체로, 원래는 그날을 감격의 날이라 할 정도로 자랑스러운 것이었으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감추어야 하는 과거가 되었다.
- ② 서양과자: 김만필이 교장을 찾아가기 전에 산 선물. 교장의 환심을 사야 한다는 T 교수의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한 다음 산 것이다. (속물성) (그러나 이 지문에서는 결국 교장 집을 찾아가지 않는다.)

### 작품의 특징

- ★① 인물의 내적 갈등이 나타나 있다. (㉠) 가슴속에서는 그의 조그만 지위와 양심이 저울에 걸려 있는 것을 느끼면서.)
- ② 비유적 표현이 제시되어 있다. (㉡) 정말 세퍼드 같은 작자)
- ③ 인물의 내면을 모두 아는 서술자 시점이 제시되어 있다. (㉢) 스즈끼는 김 강사의 눈치가 험해 가는 것을 보고 어쩔지를 몰라 멈칫거렸으나 스즈끼가 그러면 그럴수록 김 강사는 이놈 시치미를 떼는구나 하고 점점 더 스즈끼가 밍게 생각되는 것이었다.)
- ★④ 속담을 활용하여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있다. (㉣) 물에 빠지는 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 ★⑤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 있다. (㉤) 그는 광화문 정류장에서 전차를 내려 효자동 가는 전차를 타지 않고 천천히 종로로 갔다.)
- ⑥ 감각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다. (㉥) 본정통의 번잡한 데 비해 이곳은 몹시 잠잠했다. 일루미네이션(설비등)만 헛되게 빛나고 세모 대매출의 붉은 깃발이 쓸쓸한 선달 대목 거리의 먼지에 퍼덕이고 있었다.)
- ⑦ 심리 묘사를 통해 등장인물의 내면적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 (연계 교재)

### 작품 TMI

#### ■ 당시의 시대적 배경

유진오의 작품은 역사적 상황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작품 분석에 앞서 당대의 사회적 배경 내지는 사회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략)

1930년대는 민족적 자각과 근대화를 이루려는 열의가 고조되었고 전세계적으로 정신적·문화적 위기감이 돌던 불안과 암흑의 시기였고, 국내에서는 일제 식민지 정책의 강화와 군국주의의 성장 속에서도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민족적 자각을 촉구하는 저항 운동이 면면이 전개된 시기이다. 우리 문학사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봉건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성립한 원칙과, 일제 식민주의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성립한 원칙과, 일제 식민주의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체득된 민족적 원칙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들은 동시에 추구되었다는 점에서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당시의 역사인식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제의 탄압은 지식인의 현실적 탈출구의 봉쇄로 지식인을 방황하게 하였고 특히 1930년대 우리의 문단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는 배경이 되었다. 이 무렵의 우리 문학은 민족주의 문학이든 프로 문학이든 하나의 저항 문학이었고 작가가 작품을 쓴다는 것은 무엇보다 자신의 생의 위협을 각오한 것이었다.

전성민, 2009. 「유진오 지식인 소설 연구」 석사학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7-8.

#### ■ 「김 강사와 T 교수」에 대하여

1930년경 작가들은 지식인으로서의 현실적 고민과 좌절을 경험하고 이를 소설의 주인공에게 반영하였다. 그리고 지식인 작가의 소설은 생각과 이론이 많은 만큼 관념소설의 형태로 나타난다. 지식인은 행동보다는 사색을 택하는 경우가 지식인 소설에서는 많다. 송재영은 한국 문학에서 과연 지식인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진단하는 자리에서 「김 강사와 T 교수」에 관해 이를 한국 지식인 소설로서 최초의 티피컬한 작품이라고 지적했다.

「김 강사와 T 교수는 사상을 행동화하지 못한 무기력한 지식인의 갈등과 비애를 다루고 있다. 작품에서의 지식인은 식민지화라는 모순된 현실 속에서 현실 순응 자세를 취하려고 하지만 지식인의 양심으로부터 오는 갈등을 겪게 된다. 처세술에 능하지 못한 뜻내기 대학 강사가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험하는 자기모멸과 속물성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자기모멸은 이전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상에 대한 어떤 판단을 보류한 채 단지 생계수단으로서 직업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사회에 나왔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어정쩡한 위치에서 기인한다. 속물성의 세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지도 거부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전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긍정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중간자적 입장에서 우유부단한 모습만을 보여줄 뿐이다. (중략)

이 작품은 일상세계에 순응해 살 수밖에 없는 한 지식인의 초라한 처지를 그리고 있다. 과거에 자신의 신념으로 활동

했던 사실마저도 취직을 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일상세계에 편입하려는 지식인의 모습은 비굴하고 초라하기까지 하다. 그만큼 일상세계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한 인간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견고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거대한 일상세계 앞에서 한 개인의 이념은 물론 최소한의 양심마저도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전상민, 2009. 「유진오 지식인 소설 연구」 석사학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31-40.

#### ■ T 교수가 알고 있는 사실

T 교수는 차를 한숨에 마시고 이번에는 알짜 위스키를 청하며,

“당신은 나를 모르셨겠지만, 나는 당신을 이왕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 작년부터 나는 조선말을 공부하느라고요.”

김만필은 T 교수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T 교수가 배우는 조선말과 김만필과의 사이에 무슨 연락이 있던 말인가? T 교수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김만필에게 친밀의 감정을 표시하기 위한 것 같았으나 김만필은 무슨 말이 또 나올지 몰라 슬그머니 겁이 나는 것이었다.

“……조선말을 배우느라고 신문에 나는 소설과 논문을 학생더러 통역해 달래며 읽었는데 우연히 당신이 쓰신 「독일 신흥작가 군상(群像)」이란 논문을 읽었어요. 정말 경복하였습니다. 독일 문학에 대해 당신만큼 연구와 이해가 깊은 이는 온 일본 안에도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H 과장 집에서 당신 이야기가 났을 때 그런 분을 우리 학교에 맞았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고 속으로 대단 바랐던 것입니다. 허허허,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써주십시오.”

김만필은 상처나 다친 듯이 속이 뜨끔하였다. 도대체 이런 말을 하는 T 교수의 내심을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작년 겨울에 《조선일보》에 연재하였던 「독일 신흥작가 군상」이란 논문은 몇 푼 안 되는 원고료를 목표로 총총히 쓴 것에 지나지 않으며 더구나 그 논문의 내용은 독일 좌익작가의 활동을 소개한 것이므로 지금 그런 종류의 일은 그의 S 전문학교에서의 지위를 위해서는 절대로 비밀에 붙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밀을 T 교수가 일부러 쳐들어 칭찬하는 것은 칭찬이라느니보다 도리어 위협으로 들렸다. 도대체 T 교수는 무슨 까닭으로 김만필에게 친절을 역지로 보이려는 것일까, 모를 일이었다.

— 유진오, 「김 강사와 T 교수」 —

해당 장면은 작품의 한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스즈키가 선생님께 찾아오기 전에 해당하는 장면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T 교수가 생각보다 '김 강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 강사'는 이것을 '위협으로 들렸다'는 것을 같이 알아두자.



내용 이해하기

“문화 비판회라니?”

- ① '김만필'이 과거 대학 재학 시절에 가입한 사회와 문화 비판 단체이다.
- ② 후에 해당 과거를 알게 된 H 과장이 김만필에게 화를 낸다. (미수록된 부분)

김만필은 시치미를 떼고 되물었다. 스즈끼는 싱글싱글 웃

인물 ①  
(김만필)

인물 ②  
(스즈끼)

으면서

“선생님이 그 회원으로 굉장하게 활동하신 것은 학생들이

문화 비판회에서 '김만필'이  
열성적인 활동을 한 것이 드러난다.

모두들 압니다.”

“아뇨, 그런 일은 없소. 그건 무슨 잘못이겠죠.”

사실과 다르게 부정하고 있는 '김만필'의 입장에 주목 ①

김만필은 당장에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그 말을 부정했다.

가슴속에서는 그의 조그만 지위와 양심이 저울에 걸쳐 있는

- ① '조그만 지위'는 현실을 의미한다.
- ② '김만필'이 '현실'과 '양심' 사이에 갈등하고 있다.

것을 느끼면서.

“그러세요.”

스즈끼는 의아해하는 표정을 하면서

“그 회가 해산될 때 선생님이 굉장한 열변을 토하셨다는 말  
'문화 비판회'를 의미한다.

까지 있는데요?”

“아니 그런 일은 없소.”

사실과 다르게 부정하고 있는  
'김만필'의 입장에 주목 ②

김만필은 그래도 부정했다. 그러나 그의 기억에는 그날의

감격에 찬 광경이 역력하게 나타났다. 문화 비판회가 드디어  
과거 '문화 비판회'에 참석했던 당시 상황 제시 ①

해산되기로 정해진 날 그는 분노에 불타서 말은 더듬거릴망  
과거 '문화 비판회'에 참석했던 당시 상황 제시 ②

정 그야말로 소리와 눈물을 한꺼번에 내뿜는 열변을 토한 것

이었다. 그 고운 기억은 그가 아무리 비열한 인간이 되어 버

말과 다르게 '김만필'은 당시의 기억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리는 날이 있을지라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인 것이다.

김만필은 그것까지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자기의 현재

과거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이유.

의 지위에 대해 잠깐 스스로 책망하는 생각에 잠겼다. 그러

나 곧 그는 공세로 옮겨 갔다. 이런 소리까지 냄새를 맡아 가

공세: 공격하는 태세.  
또는 그런 세력.

지고 학생 새에 펼쳐 놓는 그 근원은 대체 어느 곳에 있는 것  
자신의 과거를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을 궁금해 하고 있다.

인가.

“그런 소문은 대체 어디서 들었소?”

사실과 다르게 부정하고 있는 '김만필'의 입장에 주목 ③

스즈끼는 김 강사의 심상치 않은 태도에 당황해서 얼굴을  
'김만필'의 태도가 자신의 기대와 달랐다는 의미.

붉히며

“요전에 다까하시 군에게 들었습니다.”

- ① '김만필'의 과거 이야기를 들은 출처 ①
- ② 인물 ③ (다까하시 군)

“다까하시는?”

“T 선생이 그러시드래요.”

- ① '김만필'의 과거 이야기를 들은 출처 ②
- ② 인물 ④ (T 선생 = T 교수)

“T 선생?”

“네. 김 선생님은 굉장한 수재시고 동경 제대서도 문화 비

판회의 중요한 회원이시었다구요.”

- ① 'T 선생'이 이야기한 내용.
- ② '김만중'을 칭찬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김만중'을 곤경에 빠트리는  
'T 선생'의 교활한 면모를 볼 수 있다.

“흠 —.”

김만필은 말없이 생각하였다. 이것은 예사로 넘길 일이 아  
특별한 상황이란 의미이다.

니다. 무슨 깊은 책략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T 선생의 이야기를 '책략'이라 보며 과거와 달리  
그를 의심하고 있다. (과거는 해당 지문에 없다.)

그러므로 T 교수는 대체 어디서 또 그런 소리를 냄새 맡아 왔

- ① '김만필'이 생각하는 'T 선생'의 이미지.
- ② 비유적 표현. (셰퍼드 같은 작자)
- ③ 'T 교수'에 대한 '김만필'의 부정적인 생각.

을까. 정말 셰퍼드 같은 작자다. 이놈 이번에는 제 본색을 나

타냈구나 하고 분개했다. 그리고 보니 지금 그의 앞에 앉았는  
학생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김만필'의  
불안한 심리가 나타나 있다.

스즈끼까지도 의심스러워졌다. 스즈끼는 오늘 처음으로 찾아  
'스즈끼'를 신용하기 어렵다는 '김만필'의 생각.

왔으면서 다른 선생한테 가서 철없이 떠들면 단번에 학교를

쫓겨날 만한 소리를 지지하게 늘어놓았으니 그렇게까지 자기

를 신용할 근거가 어디 있는가. 어쩌면 이 스즈끼 놈도 T 교

수와 한통이어서 일부러 김만필의 본심을 떠보려 온 것이나  
'김만필'은 '스즈끼' 또한 'T 교수'와 한통속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다.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기를 시작하니 다음다음 모든 것이

의심덩어리였다. 대체 취임식 다음 날 T 교수가 난데없이 스

즈끼 욕을 자기에게 들려주던 것부터 이상스러웠다. 그것은

① 과거 회상  
② T 교수가 '스즈끼'에 대하여 욕을 하였다는 것. (부정적인 이미지 각인)  
일부러 자기를 속일 전제가 아니었던가…… 스즈끼는 김 강

사의 눈치가 험해 가는 것을 보고 어쩔지를 몰라 멈칫거렸으

① 전지적 시점  
② '스즈끼'의 내면과 '김만필'의 판단이 다르다.  
나 스즈끼가 그러면 그럴수록 김 강사는 이놈 시치미를 떼는

구나 하고 점점 더 스즈끼가 밍게 생각되는 것이었다.

「김 강사와 T 교수는 제목만 봐도 '김 강사'와 'T 교수'가 핵심 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물'을 위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① 서술을 읽으면서 인물에 대한 행동, 과거, 외양 묘사 등을 파악하고, ② 인물 간의 대화를 읽으면서 상황, 인물에 대한 태도 등을 읽으면 된다.

해당 장면은 '스즈끼'와 '김 강사'의 대화 내용을 유추하는데, 어느 정도 서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김만필은 강사가 되기 전, '문화 비판회'에 활동하였다.
- ② T 교수는 김만필에게 스즈끼에 대한 욕을 하였다.
- ③ T 교수는 김만필 모르게 '다가하시 군'에게 '김만필'의 과거에 대해 말했다.

시간의 흐름을 바탕으로 다시 인물의 태도를 보자. '스즈끼'는 '문화 비판회'에서의 '김만필'의 열성적인 발표에 감명을 받고, 자신의 동호회의 전담 교수가 되어줄 것을 부탁하고자 이렇게 찾아왔다(미수록된 부분). 그러나 스즈끼의 예상과 다르게 '김만필'은 현실을 생각해야만 했다. 더구나 신뢰가 가지 않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 있는 곳이라서 모든 것이 아무도 믿지 못하고 의심이 커져만 간다.

이처럼 (중략) 이전은 'T 교수'를 불편하게 여기는 '김만필'의 내면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은 이 부분에 집중하면 된다. 특히 '김만필'은 '현실'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리하게 포착하자.

(중략)

“긴장, 그날 밤 일 아즉 기억하고 계시죠. H 과장 댁 앞에

① 해당 지문에는 없는 내용이다.  
② 과거 H 과장에게 인사하러 갔다가 T 교수를 만나게 된 일을 말한다.  
서 우리가 맞닥뜨리던 날 밤 —.”

김 강사가 의미 없는 웃음을 지었더니

인간이 가진 '속물성'을 상징한다.  
“기억하고 계시죠. 내가 과자 상자를 들고 갔던 것 보셨죠.”  
속물적인 인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김 강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이란 다 그런 겁니다. 난들 그런 짓을 하기가 좋아서  
윗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뇌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하겠소. 어쨌든 지금 연말도 되구 했으니 교장한테 무어 과

- ① 인사치레를 하라는 의미이다.
- ② 인물 ⑤ (교장)

자라도 한 상자 사 가지구 찾아가 두시란 말이요.”

말해 던지고 T 교수는 그대로 가 버렸다.

이 장면 다음의 이야기를 깊게 하려면 먼저 'T 교수'가 한 조언에 주목해야 한다.

'김만필'은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특히 이 현실은 그가 마주하기 싫은 현실과 자신의 양심을 저울질하며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김만필'은 자신의 과거를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상황 속에, 누군가에게 아무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괴로움을 느낀다. 게다가 자기를 위한답시고 설교하는 'T 교수'의 말은 충고인지 조롱인지 알 수 없을 뿐더러, '김만필'에게 '교장한테 상자라도 사 가지구 찾아가라'고 이야기한다.

과연 '김만필'은 어떤 선택을 할까? 현실을 받아들일까? 아니면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거부할까? 다음을 보자.

교실에 들어가 강의를 하면서도 김 강사는 T 교수의 말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 씹어 생각해 보면 T 교수의 말은 그럴

듯도 싶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와서 과자 상자를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예측.

사 들고 주적주적 교장을 찾아가도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도

리어 업신여김을 받을 것 같았다. 뿐 아니라 T 교수의 성격이

라든지 그의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그가 진정으로 김 강사를

위해 무슨 말을 해 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만일 그렇  
T 교수는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며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

다면 T 교수의 말은 실상은 책상물림 주제에다 어딘가 만만치  
T 교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김만필'.

않은 교장이 있는 김 강사를 조롱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또다시 돌려 생각하면 T 교수의 말은 좀 더 의미가 깊

은 것으로 '교장은 너를 미워하고 있다. 너도 미리 생각을 돌  
직업을 유지하려면  
'교장'에게 밍보이지 말라는 협박처럼 느낀다는 것.  
리지 않으면 목이 잘라진다.'라는 협박같기도 생각되었다.

'김만필'은 많은 생각에 잠긴다. 'T 교수'로부터 조롱받는 것 같기도 하고 협박받는 것 같기도 하다가, 어느 누구도 자신을 위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현실'을 포기하면 되지만, 세상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생계의 위협은 현실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T 교수'는 이것을 인질로 잡아 '김만필'을 조롱하고 협박하며 비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T 교수는 자신의 말에 전혀 문제를 느끼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은 T 교수의 인간 됨됨이가 썩 좋지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어쨌든 그날 밤 김 강사는 명치옥에 가서 서양과자를 한 상자 샀다. 위 푸깅에 '조품'이라 두 자를 쓰고 그 밑에

시간적 배경. ① 서양과자를 산 장소. ② 공간적 배경.

자기의 명함을 붙였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그의 마음속

조품: 매우 간략하게 만들어 거칠고 변변하지 못한 물건.

에서는 중시 두 가지 의사가 싸우고 있었다. 암만 무얼 해도

아부하는 것이 싫다. vs. 아부를 해야만 한다.

이 짓만은 하기 싫다. 자기가 이것을 가지고 가면 교장은 이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교장에게 선물을 주는 일을 말한다.

놈 인제두 하고 빙그레 웃고 T 교수는 등 뒤에서 그 능글능글

자신을 조롱하는 '교장'과 'T 교수'의 태도에 대한 '김만필'의 거북함을 느낄 수 있다.

한 웃음을 띠고 나의 어리석음을 조소할 것이다. 어차피 S 전

문학교에 다니는 것도 길지는 않은 것이니 이런 짓까지 하면

자신이 이런 짓까지 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이다.

그만큼 나는 밑질 뿐 아닌가. 그러나 바로 그다음에는 다른 생

각이 드는 것이었다. 아니 T 교수의 말대로 세상이란 다 이

런 것이다. 내가 지금 암만 뽀내 본뵈자 배 속을 짜개면 S 전

문학교를 나가고 싶지 않은 것이 본심이 아닌가. 물에 빠지

현실과 타협해서라도 직업을 유지하고 싶은 '김만필'의 본심. (내적 갈등을 겪는 '김만필'의 모습이 드러남)

는 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한다. 이론이 다 무엇이냐. 내가

① 풍유법. ② 속담. (물에 빠지는 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이런 짓을 하는 것이 더럽다 하면 나에게 이런 짓을 하게 하는

과자를 들고 교장에게 찾아가는 짓을 의미한다.

자들은 더 더러운 것이다. 이런 것으로 더럽히는 것은 내 양

'내가 하는 짓'과 '남이 나에게 이런 짓을 하도록 하게 한 것'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위로하고 있다.

심이 아니라 놈들의 양심이다. 나는 요런 조그만 미끼를 몰고

'서양과자'를 의미한다.

좋아하는 놈들의 그 천박한 꼴을 조소하면 그뿐인 것이다 —.

김 강사는 악마의 마음을 먹은 심 잡고 과자 상자를 들고

바로 위의 '내가 이런 짓을~조소하면 그뿐인 것이다'까지를 의미한다.

서대문행 전차를 탔다. 그러나 그의 결심은 오래 계속되지 못

교장이 사는 동네를 뜻한다.

했다. 그는 광화문 정류장에서 전차를 내려 효자동 가는 전차

공간의 이동. (광화문 정류장 → 종로)

를 타지 않고 천천히 종로로 갔다. 본정통의 번잡한 데 비해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공간을 묘사하고 있다.

이곳은 몹시 잠잠했다. 일루미네이션(설비등)만 헛되게 빛나

고 세모 대매출의 붉은 깃발이 쓸쓸한 선달 대목 거리의 먼지

에 퍼덕이고 있었다. 한참이나 거리를 어슬렁거리다가 욕심

'김만필'이 내적 갈등에 쌓여 있는 것을 행동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쟁이로 일가 간에 돌림뱅이가 된 아주머니를 생각한 그는 걸

음을 빨리해 파고다 공원 뒷골목으로 들어갔다.

① '김만필'이 최종으로 간 공간. ② '김만필'은 교장에게 가는 것을 포기.

해당 장면에서 분석해야 하는 것은 '김만필'의 내면 심리와 행동 변화이다. '김만필'은 '그날 밤' '명치옥'에 가서 '서양과자'를 사고 자기 명함도 붙였다. 여기까지 볼 때 'T 교수'가 말한 대로 현실에 타협하고 아부하는 삶을 택한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내면은 '아부를 하기 싫다'라는 '의사'와 '아부를 해야 한다'라는 '의사'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김만필'은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하도록 만든 자들(T 교수와 교장) 더욱 더럽다며 자신을 위로하며 '교장' 집으로 가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그런 결심도 잠시 목적지인 '교장 집'을 앞두고 '종로'로 갔다. 그리고 자신의 내적 갈등 사이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 즉 자신의 양심에 따르기로 하며, '교장'에게 가서 아부를 떠는 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 이상의 이야기는 보지 않아도 '해피 엔딩'은 아닐 것이다. 지성인의 쓸쓸한 삶을 그린 작품이기 때문에 '그가 처한 현실'과 '그가 느낀 감정'에 공감하며 읽으면 된다. 문제는 이보다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꼼꼼하게 이해하길 바란다.

- 유진오, 「김 강사와 T 교수」 -